추사가 초의에게 보낸 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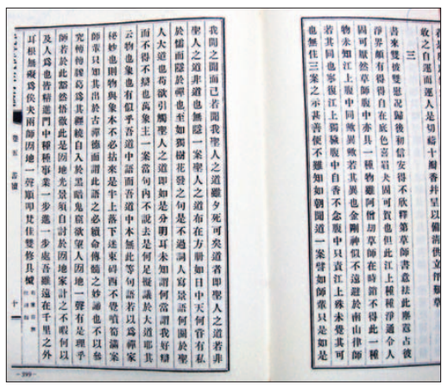
초의 스님의 자재한 경지 축하

제주에서 해배된 후, 추사는 강상(江上)에 머물렀다. 〈완당전집〉〈여초의〉3신과 〈완당척독〉에 수록된 추사의 편지는 초의의 서신을 연이어 받고, 그 기쁨을 "두 장의 편지가 와서 모두 펼치니 두 배로 위로가 된다" 하였고, 이어 "하물며 돌아온 후 첫 편지이니 어찌 기쁘고 후련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이 편지의 내용은 초의의 〈일지암문집〉 〈답쌍수도인(答雙修道人)〉과 상통하는 의론이 있어서 살펴보니 바로 초의의 편지가 추사의 〈여초의〉3신의 답신이었음이 확인된다. 아울러 "쌍수도인을 해양(海陽)에서 작별한지 벌써 7개월이 지났다"고 한 초의의 증언은 해양이 바로 전남이고, "작별한지 7개월이 지났다"는 것으로 보아 추사가 제주에서 해배된 후 강상에 머물던 시기인 1849년 6월경의 편지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초의와 추사의 편지는 이들 사이에 왕복된 편지이었음이 드러난 셈이라 하겠다. 한편 필자는 추사의 편지를 연재하면서 늘 풀리지 않는 의문은 추사의 편지에 대한 초의의 답신이 발굴되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현재까지 파악된 추사의 편지는 무려 70여 통이나 되지만 초의의 답신은 〈일지암문집〉에 수록된 〈답쌍수도인(答雙修道人)〉이 유일하다.

조선 후기 유불교유의 대표적인 인물이었던 이들의 우정은 추사의 편지에서도 절절한데, 유독 초의가 보낸 편지가 발굴되지 않는 것은 무슨 연유일까. 이번호에 다룰 이들의 왕복 편지는 유일하게 짝을 이룬 편지란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초의의 편지가 발굴되기를 고대하면서 추사와 초의의 왕복편지를 세 회로 나누어 소개하고자 한다.



〈일지암문집〉에 수록된 〈답쌍수도인〉

〈답쌍수도인〉 유일하게 짝 이룬 편지
추사편지 70통…초의 편지는 어디있나

두 장의 편지가 와서 모두 펼치니 두 배로 위로가 됩니다. 하물며 돌아온 후 첫 편지이니 어찌 기쁘고 후련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스님의 편지에 나열된 내용엔 이 시끄러운 티끌을 벗어나 저 정토를 차지하고, 자못 자유자재한 모습과 군자다운 안목을 얻었다니 진실로 축하할 만하군요. 다만 여기 江上에서 종종 정계와 통했다면 사람이 진실로 싫증나게 여길 만할 겁니다. 그러나 스님의 마음속에도 또한 이런 중생심을 가지고 있으니 설령 무량의 겁을 지나더라도 그대의 내생에는 이런 중생심을 녹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모르겠습니다만 강상과 복중이 같은가요, 다른가요. 만약 다르다면 금강신이 멀리 남산의 율사를 피할 것 같지는 않을 듯하고, 만약 같다면 어찌 나만 복중이 더럽고, 자신은 향기롭다고 하여 (중생심으로 가득한)마음속을 생각하지 않으시고, 다만 나만 다르다고 꾸짖으십니까. 그것이 옳은지 모르겠군요. 無住 스님의 보인 세 가지 공안은 매우 좋아서 알기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마치 아침에 도를 들으면(朝聞道)이란 것과 같아서 비유하면 그대들은 다만 나는 이렇게 들었다(如是我聞)의 들음과 같을 뿐인데 우리 (유가의)성인의 도를 들으면 설령 저녁에 죽어도 좋다는 것입니다. 도(道)란 즉 성인의 도이니 만약 성인의 도가 아니면 도(道)가 아닙니다(書來雙披雙慰 況歸後初信 安得不欣釋 第草師書意 Ⅵ此塵œ£占彼淨界 頗有得得自在底色喜眉1Q固可賀也 但此江上種種淨通令人固可厭 然 草師腹中 亦具一種物 雖阿僧 r草師在時 銷不得此一種物 未知江上腹中同歟異歟若其異也 金剛神似不遠避於南山律師 若其同也寧復江上獨穢腹中 自香不念腹中 只責江上殊 未覺其可也 無住三案之示甚善 便不難知 如朝聞道一案 譬如師輩只是如是我聞之聞而已 若聞我聖人之道 雖夕死可矣 道者卽聖人之道 若非聖人之道 非道也)

쌍수도인은 바로 추사의 호이다. 추사는 벗의 자재한 경지를 축하하며, 강상과 복중(腹中)의 의론을 진지하게 토론하였다. 실제 무주스님의 세 가지 공안이 무언인지는 알 수 없지만 공자의 "마치 아침에 도를 들으면(朝聞道)"이라는 예문을 든 추사의 의중은 무엇이었을까.



박동춘(동아시아 차문화연구소장)

[사단법인 등록번호 234121-0001373]

사단법인 대원불교 조계종 종도모집



석가여래부촉법 제 77세
청봉 석정산 대종사





◈ 입 종 안 내 ◈

1) 입종 구비서류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주민등록증 앞, 뒤 사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법당사진 안 밖 각 1매(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을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총본산 :** 경남 양산시 주진동 656번지 불광사 총무원장(직)
010-3565-2462 혜오 원장 스님
총무원 070-4187-4747
종정예경실 055)364-4747

2) 입종 후 발급 증명서
◇승려증(법사증, 포교사) ◇사찰 등록증 ◇주지 임명장
◇추대장 및 위촉장(간부스님에 한함)
※ 계좌번호 : 농협 351-0227-1551-63
예금주 : (사) 대원불교 조계종

종 정 청봉 석정산 (종정실 예경실장 : 석무량 / 종정실 사서실장 : 석보각)

원로회
고 문 석홍섭
원로회장 석무공
부 회 장 석무겸 석만월

승정원
승정원장 석원정

중앙종회
종회의장 석덕오
부 의 장 석월오

호법원
호법원장 석원명

감찰원
감찰원장 석만오

사정원
사정원장 석법경

총무원
총무원장 석혜오 부 원 장 석용암
총무부장 석윤오 교무부장 석성오
재무부장 석법담 사회부장 석혜주
정보부장 석보각 동원부장 석법원
행사부장 석지혜 의전부장 석근홍
사무총장 석초오

호계원
호계원장 석지원

문화원
문화원장 석설산

감사원
감사원장 석지명
부 원 장 석법호

포교원
포교원장 석혜광

기획원
기획원장 석우암
부 원 장 석법승

교육원
교육원장 석보행
부 원 장 석대명
부 원 장 석운오
강원원장 석법오

교구종무원
구미종무원장 석혜광
전북종무원장 석설산
마산종무원장 석법경
전남종무원장 석법진
진주종무원장 석덕오

총본산 인터넷 주소 : www.dwbk.net

"제 14기 영남(통도소리)범음범패 교육생모집"
범음(홋소리,짙소리) 범패(강쇠, 북, 태징)
• 기초 2개월 _ 도량석, 종성, 각단 예불, 불공, 시다림,
• 고 등 1년 _ 중노릇하는법, 상주권공, 구병시식등, 천도재,
• 전 문 2년 _ 시왕각배, 예수재, 영산재, 수륙재,
(기초의식부터 ~ 전통전문분야등 범패의 모든 것)
개강일 2014년 양력 1월 6일 (매주 월요일)

직지인심 견성성불을 체득하고 대승사상 지장보살행을 용으로 하며 상구보리 하화중생을 종지로 삼고 있는 **(사)대원불교 조계종 총본산 불광사**에서는 부처님의 불법을 함께 펼쳐 나갈 사찰 및 종도님을 모십니다.

만약 본 총무원을 사칭하며 금품, 또는 물품 판매를 강요하는 자가 있으면 즉시 총무원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한 장의 사진 속에 한 가족의 행복이"

다문화 가정 보살피는 한용외 이사장 (인클로버재단)

사회복지법인 인클로버재단을 이끄는 한용외 이사장(66)은 삼성전자 사장 출신이다. 영남대를 졸업하고 1974년 삼성그룹에 입사해 삼성전자 생활가전총괄 사장, 삼성문화재단 사장, 삼성사회봉사단 사장으로 일했다. 또한 그는 퇴직과 동시에 2010년 개인 재산 10억 원을 들여 다문화 가정을 지원하는 인클로버재단을 설립했다.

세계적인 기업으로 발돋움한 삼성. 그는 여기서 말단 사원으로 입사해 최고의 자리인 사장 까지 올라간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그 자리에 서기까지 직장에서 수십 년 동안 열정을 갖고 매진했다. 대다수 사람들은 최고의 반열에 있을 때 그 자리를 지키기에 급급하지다. 그 때문일까. 은퇴 이후엔 열정이 사라지며, 후유증을 겪기도 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행보다. 그러나 한 이사장은 달랐다. 그는 최고의 자리에서 내려가야 할 때를 생각했다.

한 이사장은 머릿 속의 구상을 바로 실행에 옮겼다. 회사를 그만두자마자 숭실대서 사회복지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그는 사재를 털어 인클로버재단을 세웠다. 인클로버(In Clover)는 '행복 속으로' 란 뜻을 지녔다. 한 이사장이 직접 지은 이름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일을 하는 단체다. 주로 다문화 가정을 지원하는 일에 앞장선다. 재단을 만든 후 그는 몸이 부서져라 전국을 돌아다니며 다문화 가정 가족 사진을 찍어주고 다문화 가정 자녀들에게 멘토링을 하고 있다. 지금까지 3년 동안 1500여 가구에 가족 사진을 찍어주고 38명의 청소년들을 사진에 취미를 붙이게 이끌었다.

이런 그를 10월 15일 서울 청담동 원화랑에서 만났다. 다문화 가정 자원봉사를 다니며 틈틈이 거리의 불빛이나 건물, 낯선 여행지서 만난 야생동물과 꽃 등을 찍은 사진을 전시하고 있었다. 이 역시 개인의 장기를 뽐내기 위해서가 아닌 다문화 가정을 돕기 위한 후원금 마련이 목적이었다.

인연 모아 행복 전해요

"클로버의 꽃말이 뭔 지 아세요? 바로 '행복' 입니다. 사람들은 행복하기 위해 살지만 정작 행복을 스스로 외면하고 있지요. 클로버의 잎은 하트 모양입니다. 사랑이죠. 이런 사랑이 세 개가 모이면 클로버가 되듯이 따뜻한 마음을 가진 인연 세 명이 모이면 바로 행복이 됩니다. 인클로버재단은 이런 인연을 모아 행복한 사회를 만들자는 의미에서 이름지었습니다."

한 이사장이 사회공헌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것은 199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삼성문화재단 전무를 지내며 그는 삼성그룹이 운용하는 문화 · 복지 · 공익재단 등을 총괄했다.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이 생소하던 1995년, 한 이사장은 삼성사회봉사단을 출범시켜 대대적인 봉사활동에 나섰다.

"지금은 대부분 기업이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지만 당시에는 생소했어요. 삼성사회봉사단을 만들 때 임직원이 자원봉사를 하면 어떻겠냐는 아이디어를 냈죠. 10년 후에는 자원봉사 활동이 사회를 변화시킬 거라는 것이었습니다. 인사고과는 물론 신입사원 서류심사에서 자원봉사 참여 경력을 보자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지금 와서 보니 그 생각이 맞아떨어졌습니다. 오늘날 많은 기업이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는 걸 보면 보람을 느껴요."

그는 2000~2003년 삼성전자 생활가전 사장을 지내고 2004년 다시 삼성문화재단 사장으로 부임한다. 이어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삼성사회봉사단 사장으로 삼성그룹의 봉사활동을 이끌었다. 이런 한 이사장이 특히 다문화 가정 지원에 관심을 가진 것은 삼성사회봉사단장 시절 문제의 심각성을 절감했기 때문이다.

"2007년 경 지방에 봉사 활동 갔다가 '농촌 총각 결혼시켜 드립니다' 라는 플래카드를 보았습니다. 그 당시 '아! 우리도 곧 다문화사회가 열리겠구나' 하고 절감했어요. 여기에 한국에서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차별 없이 자랄 수 있을까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아이들이 한국사회서 적응 못하고 어두운 구석으로 내몰린다면 우리 사회는 미래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통계에 따르면 다문화 가정 이혼율은 30%에 달한다. 또 일부 지역에선 취학 연령의 다문화 아동 · 청소년의 반 이상이 학교를 다니지 않을 만큼 심각하다.

이에 한 이사장은 삼성사회봉사단 활동 영역 중 하나로 다문화가정 지원 분야를 넣었다. 막연히 사회복지운동가로 설정한 인생 이모작의 방향추가 다문화가정에 대한 복지활동으로 확고해진 것도 이 때였다.

불교와 삼성 간의 징검다리 역할

봉사활동을 통한 사회공헌에 대한 한 이사장의 꿈은 사실 어려서부터 키워져 왔다. 자라나면서 나눔과 자비행을 강조하는 불교의 영향을 받은 까닭이었다. 경남 합천군 가야면 해인사 인근서 태어난 한 이사장은 환경적 영향으로 자연스럽게 불자가 됐다. 서울로 올라 온 이후 한 이사장은 20년 넘게 안양 한마음선원 본원에 다녔다.

"매월 한번 이상 한마음선원에 나갑니다. 선원 신도회에서는 거사회 중 하나인 '심견회' 에 속해 활동하고 있지요. 다른 이들을 자신처럼 보살피라는 불교의 가르침이 없었다면 이런 사회적 회향이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한 이사장의 불심은 그가 삼성 그룹 재직 당시 불교계와 징검다리 역할을 하게 하기도 했다.

삼성그룹 재직 당시 사회공헌 이끌어
불교계·삼성 그룹 중간 조율 역할도
은퇴 동시에 10억 출연, 재단 설립
1500명 사진, 직업 멘토링도 진행
10월 9~15일 다문화 후원 위한 첫 사진전

"삼성 리움미술관이 소장한 현등사 사리구 반환소송 때였어요. 삼성은 우리 문화재를 보호하고 보존하는 차원에서 국보급 문화재를 다량 소장하고 있었지요. 불교계는 반환을 요구했지만, 선의 취득한 문화재를 사찰로 무턱대고 돌려 줄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소송이 진행됐고 법원은 삼성 측의 손을 들었어요. 하지만 삼성은 반환을 결심합니다."

이 당시 그는 삼성을 대표해 수차례 불교계 인사들과 만났다. 특히 당시 총무원장이던 지관 스님과는 막역한 사이여서 수차례 만나 의논했다. 양측 입장은 팽팽했지만 원만 해결을 위해 그는 최선을 다했다. 그 결과 불심이 깊었던 당시 리움미술관 관장 홍라희 여사 덕에 삼성 측이 반환을 결심하게 됐다.

"홍 여사가 불자가 아니었다면 반환이 쉽지 않았을 겁니다. 당시 사리함 안에 사리가 있었기에 신앙의 대상이라는 큰마음을 낸다는 차원에서 반환을 진행하게 됐지요. 개인적으로, 또 불자의 한명으로서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는 지관 스님을 만나 현등사 사리구 반환에 관한 협약을 맺는 등 반환을 순조롭게 처리했다. 불교계와의 인연은 대장경 전산화 작업으로도 이어졌다. 고려대장경연구소 종림 스님과의 인연으로 삼성이 대장경 전산화 사업에 뛰어들게 한 것이다. 삼성문화재단 사장으로서 그는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올 3월 열린 고려대장경연구소 20주년 기념식에서 이런 공로를 인정받아 그는 공로패를 받기도 했다. 하지



한용외 인클로버재단 이사장이 사진을 찍기전에 즐거운 표정을 유도하고 있다.



한용외 이사장은 … 1947년 대구에서 태어난 그는 1974년 영남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제일합섬에 입사해 1980년대 삼성그룹 비서실에서 근무했다. 삼성문화재단 전무를 거쳐 2000~2003년 삼성전자 생활가전 사장, 2004년 다시 삼성문화재단 사장으로 부임했다. 이어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삼성사회봉사단 사장을 지냈다. 2009년 숭실대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박사를 취득했으며 2010년 사재 10억원을 들여 인클로버 재단을 설립해 다문화 가정을 보살피는데 앞장서고 있다. 작품 '영원회귀'를 배경으로 미소짓는 한용외 이사장.

만 역시 그는 그 공을 홍 여사의 불심 덕으로 돌렸다.

"대장경 전산화는 꼭 진행돼야 할 사업이었지요. IT 시대로 접어들며 민족의 찬란한 문화유산인 대장경을 시대에 맞게 바꾸는 사업을 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독실한 홍 여사께서 특히 관심을 보였습니다. 중앙일보 등도 함께 참여했지요. 이는 종교를 뛰어넘어 우리 문화를 현대화 하는 일이었습니다."

항상 건강 걱정하시던 대행 스님

한마음선원 대행 스님의 격려와 경책은 그가 경쟁이 치열한 삼성에서 버틸 수 있었던 힘이었다고 토로한다. 특히 그는 스님의 조언 덕분에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건강을 챙길 수 있었다고 했다.

"하루는 스님을 친견했을 때입니다. 전 삼성에 다닐 때 술을 많이 마셨어요. 그런데 한번은 스님에게 술을 마셔서 몸이 안 좋다고 했더니 스님께서는 '그 누가 말리나, 지가 좋아서 마시는 술인데' 라고 하시더라구요. 보통 스님들은 술이 건강에 해로우니 술을 마시지 말라고 하시는데 왜 그런 말을 하실까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그 원인이 바로 저한테 있다는 말이셨죠. 스님은 '두 번 만날 기회가 있으면 한번 만나고, 두 번 권할 기회가 있으면 한번만 권하고, 한잔 권할 기회가 있으면 반잔만 권하라' 고 하셨어요. 스님이 말씀해주신 대로 하니 주량이 1/8로 줍디다.(웃음)"

한 이사장은 "스님이 틈만 나면 '공부하라' 고 하셨다"며 스님의 경책으로 계속해서 노력하고 또 은퇴 이후를 준비할 수 있었다고 감사해 했다.

"모두가 은퇴 이후에는 제 2의 인생을 얘기합니다. 하지만 이런 구분은 무의미해요. 불교에서는 과거는 현재와 연속으로 이어지고 모든 것은 연관돼있다고 말합니다. 인생을 전체적으로 보고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고 계속 노력해 나가야 합니다. 자신의 기술과 능력을 바꿔 다른 활동을 얼마든지 해나갈 수 있습니다."

한 이사장의 불심 때문일까. 전시회 사진 중에도 연꽃과 불교의 사상을 담은 사진이 눈에 띄었다. 이번 전시회에서 가장 인기를 끈 대표작 또한 부여 서동연꽃 축제서 찍은 연꽃 사진이다. 특히 원을 그리며 순차적으로 창문이 나있는 리움미술관 천장을 찍은 '영원회귀' 라는 사진은 그의 종교적 색채를 잘 드러낸 사진이었다.

"불교에서 원은 인생을 의미합니다. 창문은 돌면서 회전하는 윤회의 의미에요. 또 순차적으로 나있는 창문은 인생의 순리를 뜻합니다. 미술관 천장을 보았을 때 그런 영감이 떠올랐어요."

작은 도움이지만 나눌 때 행복해

인클로버재단은 한 이사장이 출연한 기금의 이자 수익으로 운영된다. 예산이 적어 다문화 가정 도서 전달, 학술 지원 등 소규모 사업에 주력 중이다.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배울 수 있도록 책 보내기 운동을 했고 다문화 가정의 건강한 자립을 격려하기 위한 생활 수기 공모전도 했다. 기부자들이 자신의 재능을 살려 직접 참여하는 사업도 벌인다. 다문화 가족사진 촬영 행사나 청소년 사진 교육 같은 프로그램 등이 그것이다.

한 이사장은 삼성 재직 시절 수백억 예산으로 봉사활동을 펼치던 때보다 더욱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물론 예산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적습니다. 하지만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은 정해진 목적이 있잖아요. 회사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방침에 따라 움직이죠. 그런데 이건 내가 좋아서 시작한 거고, 내 마음대로 하면 될 일이니 마음이 더 편해요."

한 이사장은 "다문화 가정에 가보면 결혼식 사진은 커녕 변변한 가족사진 한 장 없는 경우가 많다"며 "온 가족이 들떠서 사진 촬영에 임하는 모습을 보면 나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지곤 한다"고 했다.

"제가 찍는 건 사진 한 장이 아니라, 한 가족의 행복을 만드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에게는 작은 노력이지만 그들에게는 행복을 기록하는 소중한 일로 다가올 겁니다. 다만 바라는 점은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행복을 전해 줄 수 있었으면 하는 거죠. 꾸준히 해나간다면 우리사회가 밝아지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밝게 웃는 한 이사장의 모습에서 나눔을 실천하는 불자로서의 진정한 행복이 느껴졌다.

글=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사진=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m



인클로버재단의 사진 재능교육을 듣는 아이들



사진을 들고 활짝 웃는 한용외 이사장과 다문화 가족들.

전법일기

"영어 잘하려면 나도 스님 될래요"

스님의 행동은 아이의 귀감

토요일 오후 1시. 오늘도 어김없이 쿵쾅거리며 왁자지껄한 소리가 계단을 타고 올라온다. 이어서 아이들의 목소리가 고요했던 공간을 경쾌함으로 채운다. 가장 꼬마인 8살 태용이와 예지의 목소리는 어느새 내 귓가에 와있다.

"스님~ 어디 계세요?"

신기하게도 아이들은 절에 오면 우선 스님부터 확인한다. 스님이 어디 있는지를 확인하고 나서 무엇을 해도 한다.

태용이와 예지는 아기 때부터 친구다. 예지가 엄마를 따라 절에 먼저 오고 태용이도 친구 따라 오게 되었다. 특히, 태용이는 목소리가 아주 크다. 혼자 어린이 집회가를 불러도 백 명의 아이들이 부르는 듯한 착각을 일으킬 정도다. 영어를 공부하기 전에 먼저 어린이 집회가, 삼귀의, 참선을 하고 부처님 일생을 듣는다. 이날은 부처님께서 성밖을 나가서 늙은 사람을 보고 놀라며 누구나 늙는다는 사실에 고통스러워 하시는 부분을 이야기했다. 그리고는 잠시 입정에 들어 어떻게 하면 늙지 않고 살 수 있는지를 부처님처럼 명상했다. 우리의 꼬마 부처님들은 예쁘게 좌선 자세를 하고 눈을 감고 잠시 선정에 든다.

잠시 후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늙지 않고 살 수 있는지 생각한 것을 이야기해 볼까요? 태용이는 어떻게 생각해?" 고개를 갸우뚱하더니 심각한 표정으로 "음, 머리를 염색 해야지요."하고 큰소리로 답한다.

다른 아이들도 정말 맞는 답이라고 감탄을 한다. 아이들이 보는 세상은 참으로 섬세하고 놀랍다.

그날 저녁, 영어담마스쿨에 다녀온 것을 알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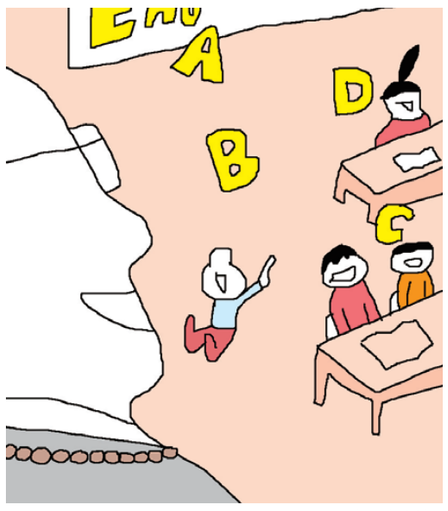


그림 · 박구원

태용이 아빠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영어를 잘했으면 하는 마음에 집에서도 영어공부를 열심히 하는 아이를 보고 싶었다.

"태용아. 오늘 비로자나 영어담마스쿨에 잘 다녀왔니? 태용이가 생각하기에 영어를 잘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아빠는 은근히 늘 영어공부를 열심히 해야 한다는 답을 기다렸다. 하지만 아이는 느닷없이 "네. 스님이 되야지요" 한다.

"뭐라고? 야, 영어를 잘하고 싶은데 왜 스님이 되어야 하지?" 말도 안 되는 답은 들을 아빠는 황당 그 자체였다.

"응. 아빠. 우리 스님이 영어를 엄청 잘하시잖아요. 스님이니까 잘하지요. 그러니까 영어 잘 하려면 스님이 되야 해요."

놀라운 일이다. 나는 태용이의 8년 인생 속에서 만난 유일한 스님이라는 것을 새삼 느꼈다.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는 속으로 '아,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스님이구나' 라고 나름 스님이라는 존재를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다.

아이들에게는 세상 속에 나와 어떤 사람을 만나든 그들에게는 세상 전부가 된다는 것이다. 이렇기에 어린이 포교는 참으로 중요하다. 어려서부터 익숙하게 익힌 문화는 당연하게 여겨지고 그들의 삶의 목표를 주기 때문이다. 얼마 전 주지 연수교육에서 서울, 경기 지역의 종교인구중 불교는 30% 밖에 안된다는 말에 큰 충격을 받았다. 나머지 70%가 개신교와 천주교라는 것이다. 너무도 심각한 우리의 포교 현실이다. 앞으로 더 많은 사찰들이 어린이, 청소년 포교에 관심과 정성을 쏟지 않는다면 한국불교의 미래는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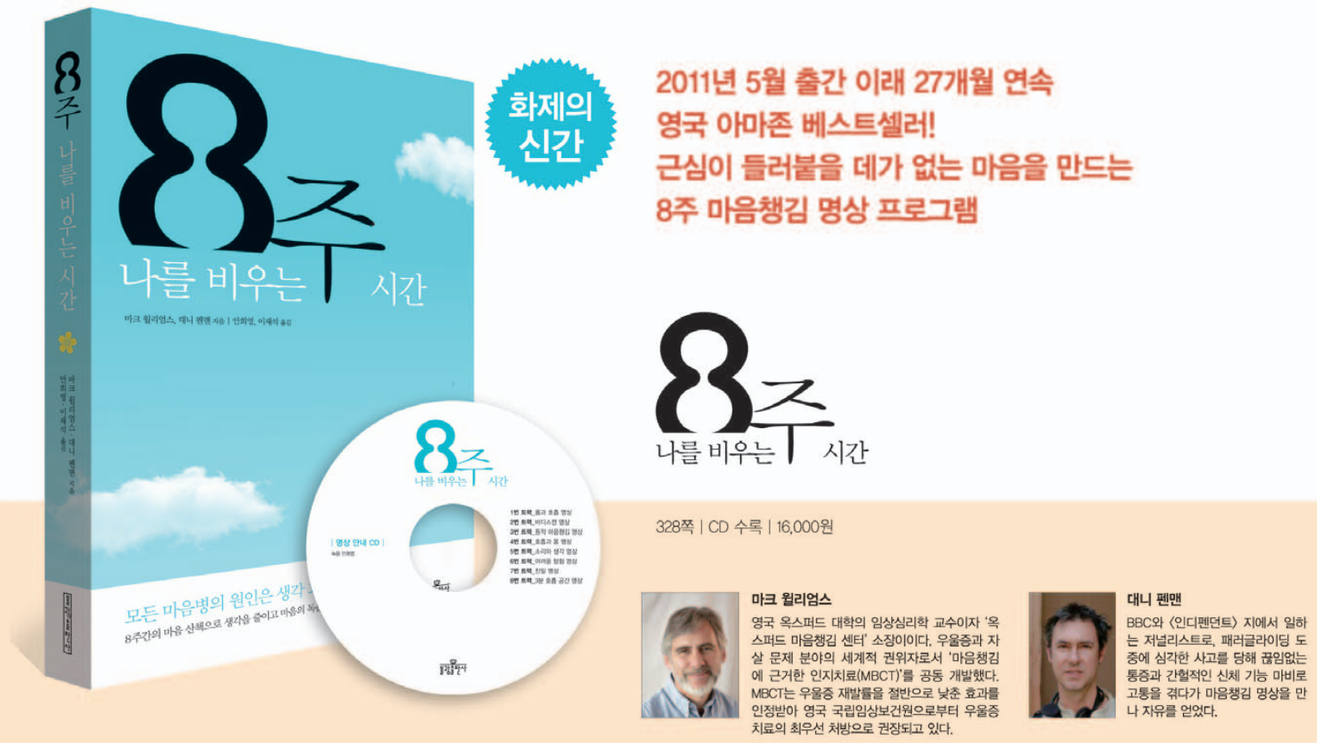
작더라도, 아이들이 많지 않더라도 아이들이 사찰에 올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속해야한다. 지금까지 어린이 포교를 하면서 느낀 것은 인원에 신경쓰지 말고 한명이든, 두 명이든 오면 정성스럽게 한다면 그것이 힘이 되어 큰 원동력이 된다는 것이다. 10월 20일 서대문 조계종 사찰연합으로 운동회를 한다. 이번에는 영어담마캠프에 왔었던 아이들을 초청했다. 엄마, 아빠와 함께 신나게 뛰어놀수 있는 야단법석을 또 한편 펼칠 마음에 절로 신이 난다. 고통 받는 중생을 돌보기 위해 출가하시고 깨달음을 얻으신 후 중생들을 어여삐 여기신 석가모니 부처님의 중생을 향한 연민의 마음이 무엇보다 그리운 날이다.



자우 스님(비로자나국제선원 선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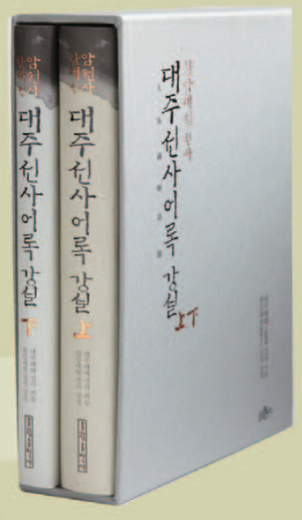
태연한 척해도 당신은 이미 느끼고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 눈썹을 찌푸리는 횟수가 늘지 않았나요?
세상이 당신에게 요구하는 것들, 스스로 자기에게 지운 짐들,
어쩌면 '나는 행복해야 해!'라는 기대까지……
생각들이 당신을 구석으로 몰아붙이고 있지는 않은가요?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8주간의 마음챙김 명상 프로그램을 따라
잠시 생각의 틀을 내려놓고 여유롭게 마음을 산책하는 건 어떨까요.
지금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일 시간입니다.



한국불교의 근간! 지금, 여기에 살아 있는
돈오선(頓悟禪)의 정맥(正脈)우리 시대 최고 선승 중 한 명인
한암대원 선사의 활달자재한 강설!

간화선의 기치를 내걸고 있는 한국불교!
그 뿌리는 돈오(頓悟)에 있고,
돈오는 『대주선사어록』에서 출발한다.



大珠禪師語錄
대주선사어록 강설(상·하)

대주혜해 大珠慧海 선사 지음
한암대원 閒庵大元 선사 강설

(상권)
돈오입도요문론 頓悟入道要門論
520면 32,000원

(하권)
제방문인참문 諸方門人參問
280면 18,000원

* 8월 이전에 판매된 29권의 『대주선사어록 강설(上·下)』을 새책으로 교환해드립니다.
불광출판사 (02-420-3200)로 연락을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불광출판사 Tel. (02)420-3200 Fax. (02)420-3400 www.bulkwang.co.kr @bulkwang_c www.facebook.com/bulkwang